

## 제주현안 해법·비전 제시 '귀추 주목'

### 국민의힘 대선주자 4인 내일 제주서 첫 합동토론회 元 전 지사 주도 속 후보별 공약 등 차별화 예상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본선에 진출한 4인의 예비후보가 오는 13일 제주를 찾아 합동토론회를 갖는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제주로 총출동하는 가운데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을 정책과 제주 발전 구상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주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이 참여한다.

생존하면서 고향 제주에서 열리는 합동토론회 참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원 전 지사는 안방에서 열리는 토론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토론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제주에 이어 18일 부산·울산·경남, 20일 대구·경북, 2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7일 강원에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31일에 최종적으로 합동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당원 투표(50%)와 여론조사(50%)를 실시해 11월 5일 전 당대회에서 최종 당 대선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다.



계절 망각한 봄꽃 며칠 더위가 이어지더니 10일 제주시 도두동 마을 진입로의 벚나무에 벚꽃이 활짝 폈다. 제주지역엔 12일 비가 내린 후 본격적인 가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선거 앞둔 '행감'... 칼날 검증 예고

### 12~26일... 코로나 대응·도정 안정 등 쟁점 예상 감사 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안건 심의도

제주도의회가 민선 7기 도정과 민선 4기 도 교육청에 대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권한 대행을 맡은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 체제에 대한 첫 행감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라는 점에서 의원들간 불꽃 튀는 검증 경쟁과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제399회 임시회를 개최한 뒤 이튿날인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행감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도정의 대응 체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분야 사회 안전망과 코로나 시대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와 방역 체계에 문

제는 없는 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도지사의 사퇴에 따른 도정 안정화 방안도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행감이 끝나면 각종 조례안과 안건 심사도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는 26일부터 회의를 열어 내달 2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와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가장 큰 관심은 제주 10년 발전 전략을 담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통과 여부로, 앞서 도의회는 지난 회기 때 해당 안건을 상정 보류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의회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 민주당 10일로 경선 마무리 이 지사 누적 득표율 50.2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과반의 득표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가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의 역사를 쓸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1차례 지역경선과 3차례 슈퍼위크(국민·일반당원투표) 누적결과 이 지사가 총 50.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지사가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공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경선에서는 51.45% 득표율을 얻었고, 전날 경기 경선에서는 59.2%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 경선과 함께 결과가 발표된 3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는 28.30%의 득표율로 얻는데 그치

면서 누적 득표율 50%를 가까스로 넘겼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일반 당원 30만여명이 투표한 3차 슈퍼위크 결과 62.37%의 깜짝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전했지만 경선 초반의 약세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누적 39.14%의 득표율로 2위에 머물렀다. 추미애 전 장관은 9.01%, 박용진 의원은 1.55%로 경선을 완주했다.

이 지사는 감사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부패·기득권경과와 최후 대첩이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구대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이라며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4년 경북 안동 출생인 이 지사는 가정 형편 탓에 공장에서 일하며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이력을 갖고 있다. 중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2010년 경기도 성남 시장에 당선됐고,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 제35대 경기도지사로 취임. 지사 신분을 유지하고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제주를 미래첨단도시로 육성"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63)은 11일 "앞으로 정보기술,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해 제주를 미래첨단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한라일보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비전에 대한 구상을 이같이 내놨다.

>>관련기사 2면

유 전 의원은 "제주가 자치도로서 위상 강화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의 확대, 제주4·3의 완전해결과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특별법과 관련한 진상규명 노력과 명예회복, 관련 보상 절차들이 신속히 이뤄져 유가족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제주 제2공항은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제2공항은 제주 발전과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 창출 등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도민의 입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7**  
 11일 <17시 기준> 누적 2979

이룸갤러리

## 백광익 화백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기간. 2021. 10. 2(토) ~ 10. 20(수) 장소. 이룸갤러리 전시실A**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imgallery.com 문의. 070-7795-5000

**백 광 익** (白光益)

**주요 경력**

- 개인전 40회 한국(서울, 부산, 광주, 제주), 미국(뉴욕), 중국(북경, 천진)
- 단체전 및 초대전 (360여 회)
- 심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 부산, 경기, 제주도, 대구삼성, 행주, 한밭, 단원 미술대전 심사위원

**현재**

사) 한국미술협회, 부산 혁 동인, 제주 전업작가회  
 사) 제주국제예술포럼 이사장, 동아육선 전속작가

**인사말**

이룸갤러리에서 백광익 화백을 모시고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초대된 백광익 선생님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 특유의 문화와 자연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다양하고 일관된 작품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안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 제주의 특별한 자연 유산 '오름'과 '바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광익 선생님의 많은 수상 이력에서도 알 수 있는 우수한 실력과, 최근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현시대보다 딱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현대적 감각은 글로벌 시대 속의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흔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제주의 특별함을 화폭에 담아내며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시는 백광익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쏟아지는 유성 같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전야같은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쓰러지지 않는 고목나무같은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이 돋보이기도 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걸음 하셔서 백광익 선생님의 제주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룸갤러리 관장 이 회 숙

오일장 교차로

제주서중 / 이룸갤러리 / 마트로마트

순복음교회 / 신광사거리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